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 2025. 3. 13.(목)

< 식약처-美 FSIS >

한-미 축산물 안전 디지털 협력 강화

- 미국, 축산물 전자증명을 위하여 다른 국가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첫 사례
- 정부증명 위·변조 차단으로 수입축산물 안전 확보, 영업자 편의 향상, 탄소중립에도 기여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축산물에 대해 수출국(미국)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*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'한-미수출입 축산물 전자위생증명 협력 양해각서(MOU)'를 미국 식품안전검사청 (FSIS)**과 3월 13일(현지시간 3월12일) 미국 워싱턴D.C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.

- * 수출국 정부가 자국 축산물이 우리나라 위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문서로, 수출 시마다 제품명, 수량·중량, 제조시설 명칭·소재지·등록번호 등 확인·발급
- ** FSIS(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): 미국 농무부(USDA) 산하 기관으로, 식육, 가금류, 계란 제품 등 축산물·축산식품 안전관리 담당

< 양해 각서 주요 내용 >

- ①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축산물(식육, 가금육 및 알 제품)의 종이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
- ❷ 전자위생증명 정보교환에 관한 기술협력
- ❸ 양국 간 전자위생증명 적용 범위·품목 점진적 확대 등

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·미 양국의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FSIS가 지난해부터 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로,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자위생증명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. 이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국가가 된다.

참고로 미국산 축산물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1위(약 31%)*를 차지하고 있으며, 현재 이미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이 적용된 호주·칠레·태국·브라질· 뉴질랜드에 이어 6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약 68%가 전자위생증명을 통해 수입된다.

* '24년 수입 축산물 검사 실적 (전 체) 12만 건, 1.8백만 톤, 12조 원 (미국산) 3.7만 건(약 31%), 54만 톤(약 30%), 4.8조 원(약 39%)

향후 한·미 양국이 전자위생증명을 활용하게 되면 위생증명서의 위·변조*를 차단해 수출입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. 아울러 종이서류 발급·확인·보관이 필요없어 효율적인 검사와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고, 종이 문서 감축에 따른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.

주요 정부증명서 위조 사례

- ('19) A국에서 수출한 오징어의 위생증명서를 정부기관이 발행한 것처럼 위조
- ('22) B국에서 수출한 젤라틴 함유 초콜릿류의 정부증명서를 정부기관이 발행한 것처럼 위조
- ('23) C국에서 수출한 콜라겐케이싱의 BSE비발생증명서를 정부기관이 발행한 것처럼 위조

앞으로도 식약처는 세계 각국과 협력을 강화해 수입 축·수산물에 대한 전자 위생증명을 지속 확대하는 등 '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'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<붙임> 1. 전자위생증명서 발급시스템 체계도 및 증명서 예시(양식)

2. 협약식 사진

담당 부서	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	책임자	과 장	손영욱	(043-719-2201)
		담당자	사무관	윤영수	(043-719-2220)
담당 부서	수입식품안전정책국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	책임자	팀 장	강승극	(043-719-6171)
		담당자	사무관	김수현	(043-719-6172)

국민 **안심이 기준**입니다 10년 지켜온 국민안심, 100년 높여갈 안심기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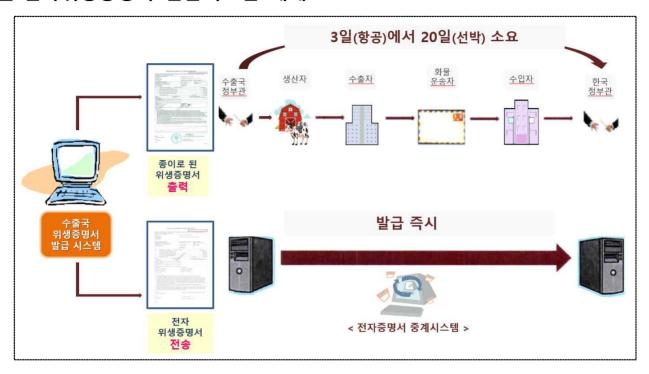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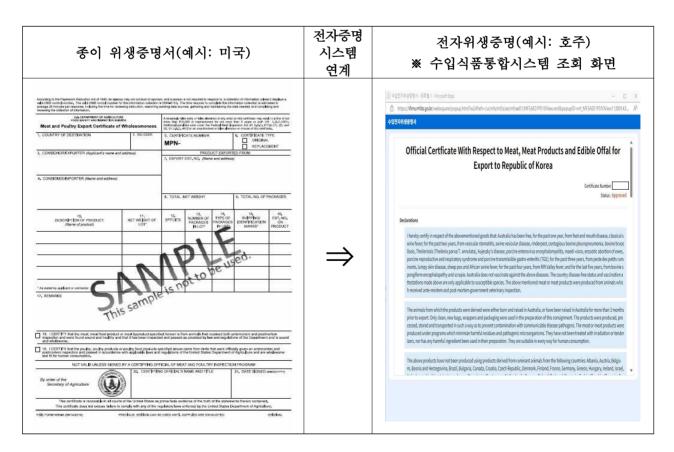
붙임 1

전자위생증명서 발급시스템 체계도 및 증명서 예시(양식)

□ 전자위생증명서 발급시스템 체계도



□ 종이 위생증명서 및 전자 위생증명서 예시(양식)



붙임 2

협약식 사진

